

##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3%로 감소세 지속
  - 9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42.4로 전년동월대비 18.4%로 감소
  - 9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4.2%의 구성비를 보임
  -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4.7%, 대형마트 5.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7%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14.7%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5.9% 증가
- 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국은 0.3% 하락
  - 상품은 전월대비 0.5%, 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
  - 생활물가 전월대비 0.3% 하락,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2.8% 하락

##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4%로 전국대비 0.9%p 낮음
  - 10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한 60.4%로 나타남
-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8.1%로 큰 폭 감소, 전국대비 청년취업 문제 심각
  - 10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8천명(-1.4%) 감소한 4,840천명임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7천명(-1.3%), 여자는 31천명(-1.5%)이 각각 감소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5%) 4.6%p 차이를 보임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로 꾸준히 증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3%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3.8%, 전국대비 0.6%p 높음
  - 10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3.8%로, 남자는 4.3%, 여자는 3.2%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8.0%로 전국의 고용률(59.3%)보다 1.3%p 낮은 수준

## 부동산

- 9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39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6%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조성 공사 및 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266.5%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주택재개발 공사 및 사무실 건축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59.4% 감소
- 10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서울의 강남지역(0.4%)과 강북지역(0.5%)은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상승폭이 일제히 크게 축소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 10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 강북지역(1.0%)에서는 강북구(2.3%)가 소형 아파트 물량 부족 및 경전철 건설 호재 등으로 매매가격과 함께 큰 폭 상승, 강남지역(1.1%)에서는 서초구(1.6%)가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되며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금융

- 9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9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1조 9,75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42% 증가
- 9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76개로 전년동월대비 45.3% 증가
- 9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7개로 전년동월대비 28.8% 감소
- 10월 서울시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수출은 31.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편직물 등의 순
  - 10월 서울의 수입은 66.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5% 감소.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의 순

## | 생 · 산 |

##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 전국의 9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4%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영상음향통신, 석유정제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11.0%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월대비 2.6%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4.2%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

## ■ 9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3%로 감소세 지속

-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9.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
-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마이너스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달에 비해 소폭 회복되는 모습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큰 폭으로 하락, 경공업 상승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2% 큰폭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5% 8개월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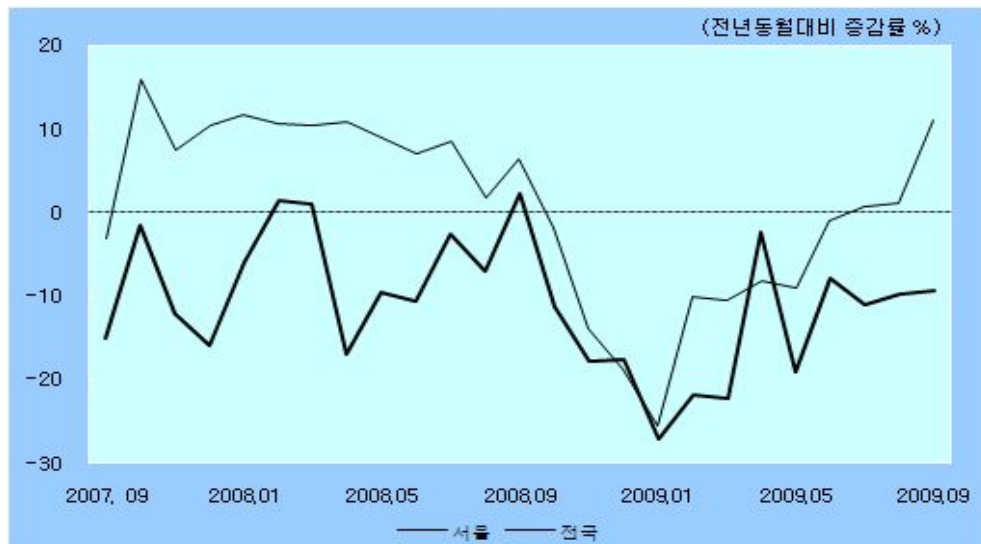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6.3 (2.4)	-9.0 (-0.9)	-1.1 (6.1)	0.7 (1.9)	1.1 (-5.6)	11.0 (12.4)
	서울 (제조업)	2.4 (9.5)	-19.0 (-17.4)	-7.8 (4.0)	-10.9 (6.8)	-9.6 (1.5)	-9.3 (9.9)
	중공업	0.6 (12.9)	-24.0 (-23.8)	-8.4 (10.3)	-12.8 (-7.8)	-13.8 (7.4)	-30.2 (-8.6)
	경공업	3.4 (7.5)	-15.9 (-13.3)	-7.4 (0.5)	-10.0 (15.7)	-7.2 (-1.4)	3.5 (19.9)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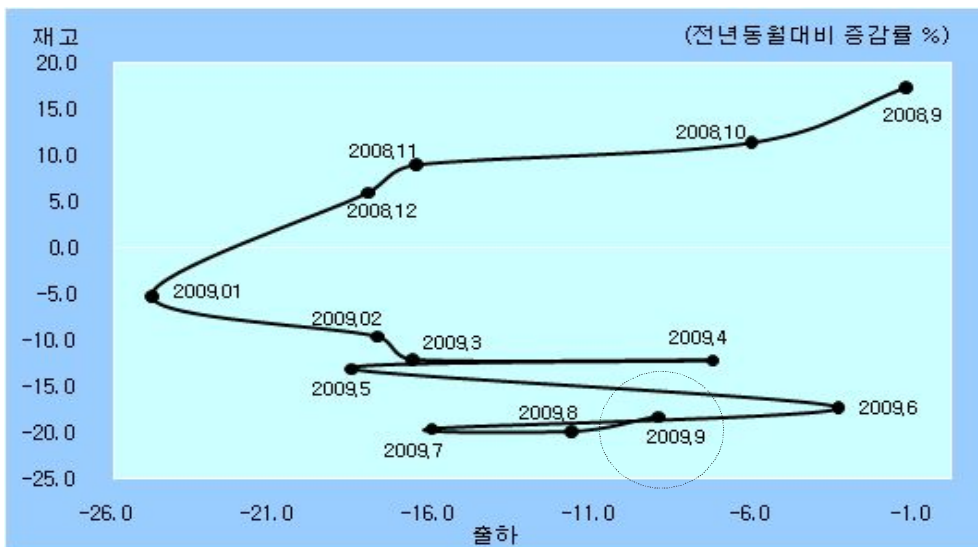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9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지역의 9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2.4로 전년동월대비 18.4%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5.1%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6.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1% 감소,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3.8% 감소
  - 출하 및 재고 각각 증가하여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부문 증가, 경공업 부문 감소

- 9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2.4%로 전월대비 3.1%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33.8%로 전월대비 9.5%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2.3%p 증가한 133.0%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1.0%p 감소한 129.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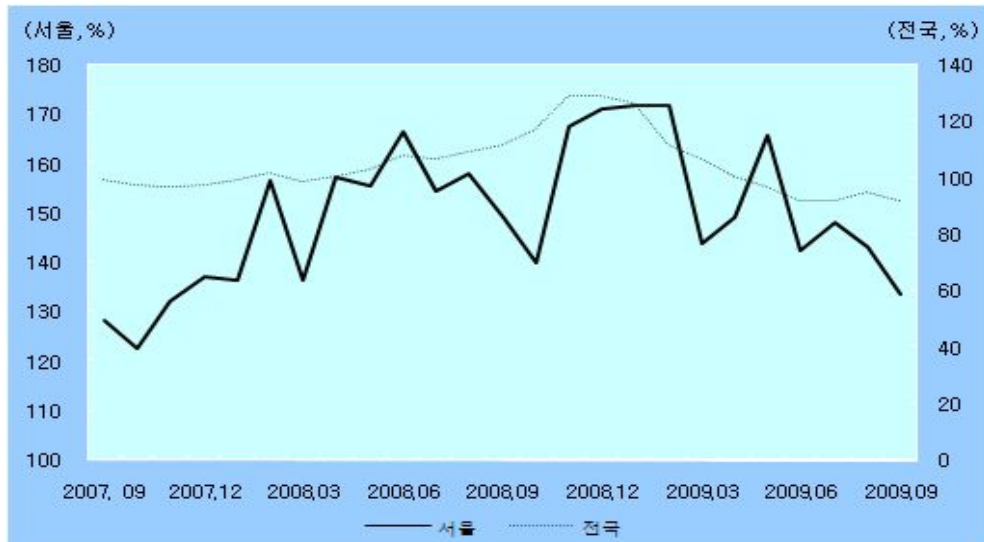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재고율	전국	112.1	97.2	92.3	92.6	95.5	92.4	-3.1
	서울	149.1	165.9	142.5	148.1	143.4	133.8	-9.5
	중공업	140.2	157.7	102.3	136.8	120.7	133.0	12.3
	경공업	153.7	167.4	166.5	148.0	150.1	129.1	-21.0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월대비 6.2% 증가

- 전국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6.2%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26.7%, 대형마트의 경우 5.4%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13.0%, 대형마트는 2.1% 각각 증가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4.2%의 구성비를 보임

-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171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34.2%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4.7%, 대형마트 5.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7%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27.9% 대형마트 9.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3%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2개 → 금년 67개)로 의복,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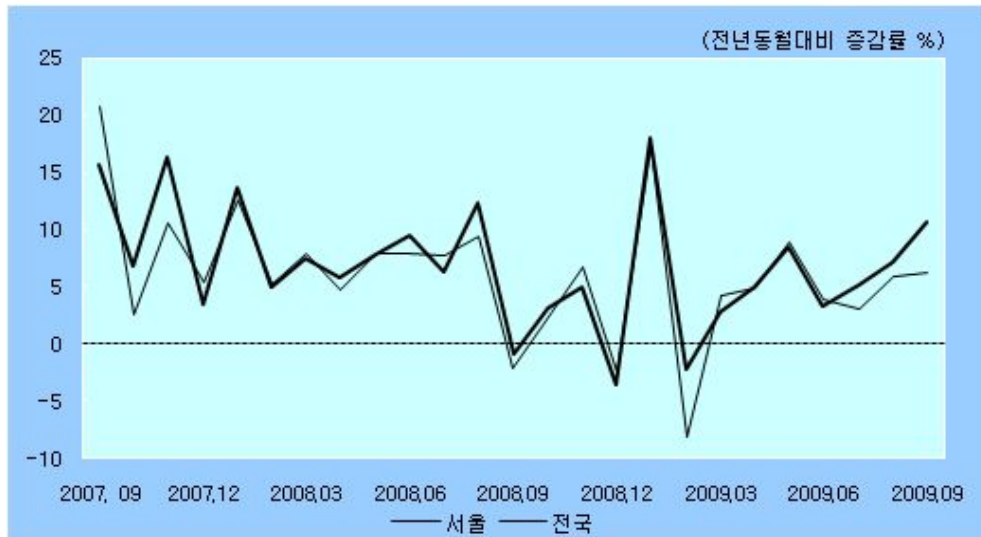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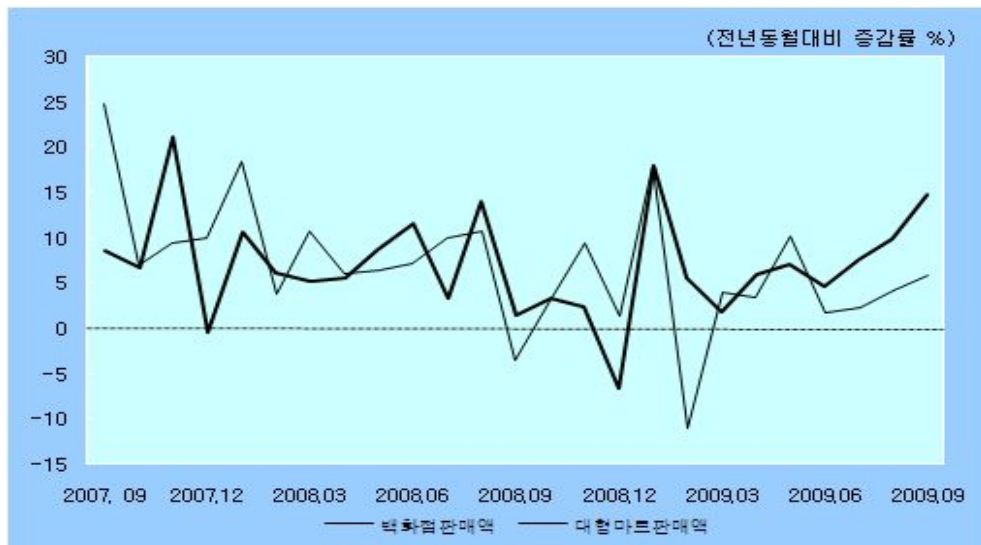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판매액	전국	4324.2 (-2.2)	4543.5 (8.8)	4060.4 (3.8)	4127.5 (3.0)	4061.4 (5.9)	4592.8 (6.2)
	서울	1418.9 (-0.8)	1510.7 (8.5)	1356.9 (3.4)	1337.7 (5.2)	1317.0 (7.2)	1571.1 (10.7)
	백화점	784.2 (1.4)	855.4 (7.1)	765.7 (4.7)	732.9 (7.6)	703.0 (9.9)	899.1 (14.7)
	대형마트 (할인점)	634.6 (-3.4)	655.3 (10.3)	591.197 (1.8)	604.8 (2.4)	614.0 (4.3)	671.9 (5.9)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 하락

##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2로 전월대비 0.3%로 하락하여 6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0% 하락, 전년동월대비 6.9% 상승
-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0.2~0.4% 하락

## ■ 10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 하락

-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8(전도시:113.2, 2005년=100)로 전월대비 0.2%(전도시:-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2%(전도시:2.0%) 상승
- 시도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은 0.2% 하락하였으며 그 외 시도 모두 0.2~0.4% 하락
- 상품은 전월대비 0.5%(전도시:-0.6%) 하락, 전년동월대비 2.5%(전도시:2.0%) 상승, 농축수산물 전월대비 1.1%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 서비스는 전월대비 0.0%(전도시:0.1%) 보합, 전년동월대비 2.0%,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0% 보합,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0% 보합

##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3% 하락,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2.8%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국:-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0% (전국:1.7%)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8% (전국:2.0%) 하락, 전년동월대비 5.0% (전국:6.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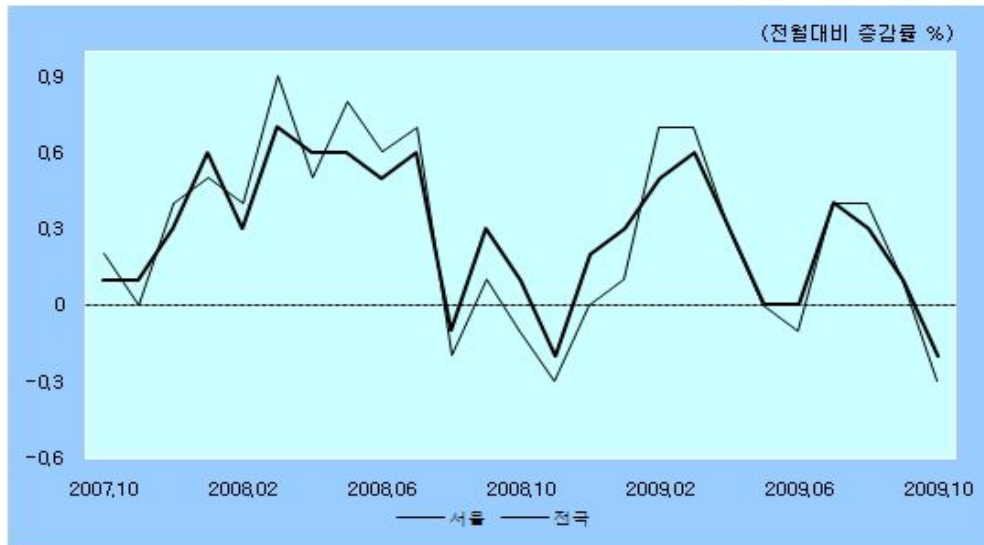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전국		-0.1 (4.8)	0.0 (2.7)	-0.1 (2.0)	0.4 (1.6)	0.4 (2.2)	0.1 (2.2)	-0.3 (2.0)
	서울		0.1 (4.4)	0.0 (3.0)	0.0 (2.6)	0.4 (2.3)	0.3 (2.6)	0.1 (2.4)	-0.2 (2.2)
	상품 성질별	상품	-0.1 (6.0)	-0.1 (4.4)	-0.4 (3.0)	0.5 (2.2)	0.4 (3.2)	0.2 (3.0)	-0.5 (2.5)
		서비스	0.2 (3.6)	0.0 (2.3)	0.2 (2.2)	0.4 (2.3)	0.2 (2.3)	0.0 (2.2)	0.0 (2.0)
	생활물가		-0.3 (4.1)	-0.2 (2.4)	-0.3 (1.5)	0.4 (1.3)	0.3 (2.0)	0.2 (2.0)	-0.3 (2.0)
	신선식품		-2.0 (-15.6)	-1.8 (14.4)	-8.5 (10.7)	1.7 (8.8)	1.7 (5.7)	-1.6 (5.8)	-2.8 (5.0)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0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 지속

## ■ 10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3%로 전월과 보합

- 전국 10월 15세 이상인구는 40,2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0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6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0.3%)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380천명으로 100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75천명으로 27천명(-0.3%)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 10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4%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10월 15세이상인구는 8,3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명(-1.2%)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남자는 71.7% 여자는 49.6%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3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천명(3.9%)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4 (0.5)	-0.1 (0.8)	0.8 (1.1)	0.3 (-0.7)	0.6 (-0.9)	0.7 (0.4)	0.3 (0.1)
	서울	-1.7 (-0.2)	-1.3 (0.2)	-0.7 (0.6)	-1.2 (-0.3)	-2.5 (-1.9)	-1.7 (0.1)	-1.2 (0.3)
	남자	-0.9 (-0.2)	-0.9 (0.7)	0.0 (0.5)	-1.0 (-0.4)	-2.3 (-1.8)	-1.6 (-0.2)	-1.2 (0.2)
	여자	-2.7 (-0.2)	-1.8 (-0.6)	-1.6 (0.7)	-1.4 (-0.2)	-2.8 (-2.0)	-1.8 (0.5)	-1.2 (0.5)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9	61.6	62.2	61.7	61.1	61.3	61.3
	서울	61.6	61.3	61.6	61.3	60.1	60.2	60.4
	남자	73.2	73.2	73.5	73.1	71.8	71.6	71.7
	여자	50.6	50.0	50.3	50.2	49.1	49.4	49.6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10월 서울의 청년실업 8.1%, 감소 폭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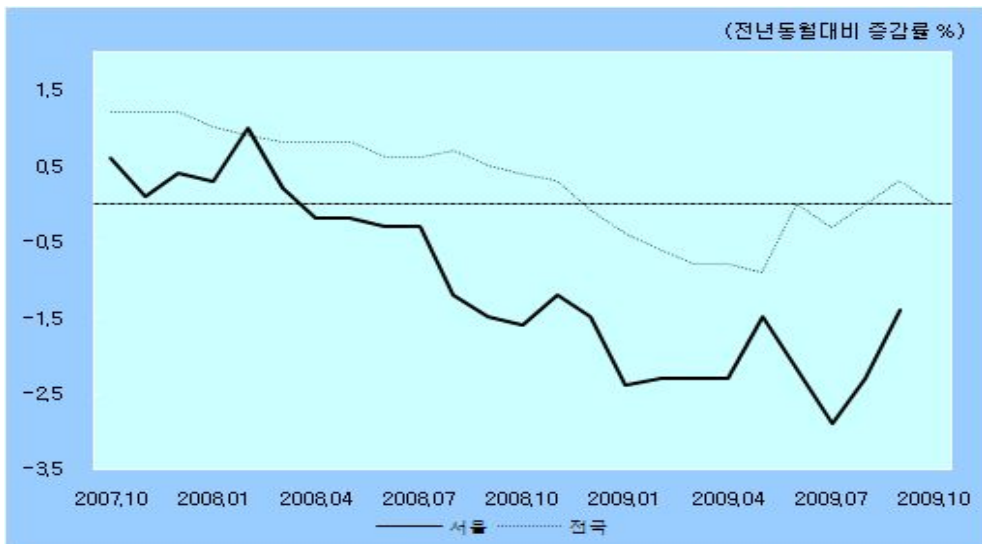
- **전국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0천명 증가, 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 지속**
  - 10월 취업자는 23,8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0.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0.4%) 증가하였고, 여자는 9,999천명으로 50천명(-0.5%) 감소하여,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였음
- **10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 8.1%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의 취업자는 4,8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1.4%)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82천명, 여자는 2,0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7천명(-1.3%), 여자는 31천명(-1.5%)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5천명(3.6%),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6천명(3.5%), 도소매·음식숙박업 15천명(1.1%)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104천명(-17.5%), 건설업 68천명(-16.2%), 농림어업 0.1천명(-2.1%)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5%) 4.6%p의 차이를 보여 전국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여 전월에 비하여 상승,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전국	0.4 (0.5)	-0.9 (0.8)	0.0 (1.0)	-0.3 (-0.6)	0.0 (-0.9)	0.3 (0.8)	0.0 (0.2)
	서울	-1.5 (-0.2)	-2.3 (0.4)	-1.5 (0.7)	-2.2 (-0.6)	-2.9 (-1.5)	-2.3 (0.3)	-1.4 (0.8)
	남자	-0.8 (-0.3)	-2.2 (1.3)	-1.4 (0.4)	-2.5 (-0.7)	-3.2 (-1.4)	-2.6 (0.0)	-1.3 (1.0)
	여자	-2.3 (-0.1)	-2.5 (-0.7)	-1.6 (1.2)	-1.8 (-0.3)	-2.4 (-1.7)	-2.0 (0.8)	-1.5 (0.4)
청년층 취업자	전국	-3.9 (-0.7)	-2.7 (1.6)	-1.7 (-0.2)	-2.7 (1.4)	-3.1 (-3.1)	-3.2 (-1.9)	-3.5 (-0.9)
	서울	-2.8 (-2.0)	-2.3 (2.1)	-1.2 (-0.9)	-4.1 (-0.7)	-7.0 (-4.0)	-9.2 (-3.3)	-8.1 (-0.9)
고령층 취업자	전국	2.1 (0.4)	1.0 (2.0)	4.4 (3.2)	3.7 (-1.6)	4.7 (0.1)	4.6 (2.0)	4.9 (0.6)
	서울	-2.0 (-0.7)	-1.7 (-0.3)	4.8 (4.3)	3.5 (-1.3)	2.2 (-1.4)	4.4 (2.9)	7.3 (2.1)
	55-59세	0.3 (-1.2)	1.7 (-1.4)	3.2 (0.9)	4.2 (-0.8)	0.3 (-2.3)	2.9 (2.0)	4.8 (0.6)
	60세 이상	-3.8 (-0.2)	-4.6 (0.8)	6.2 (7.3)	2.9 (-1.6)	3.7 (-0.7)	5.6 (3.6)	9.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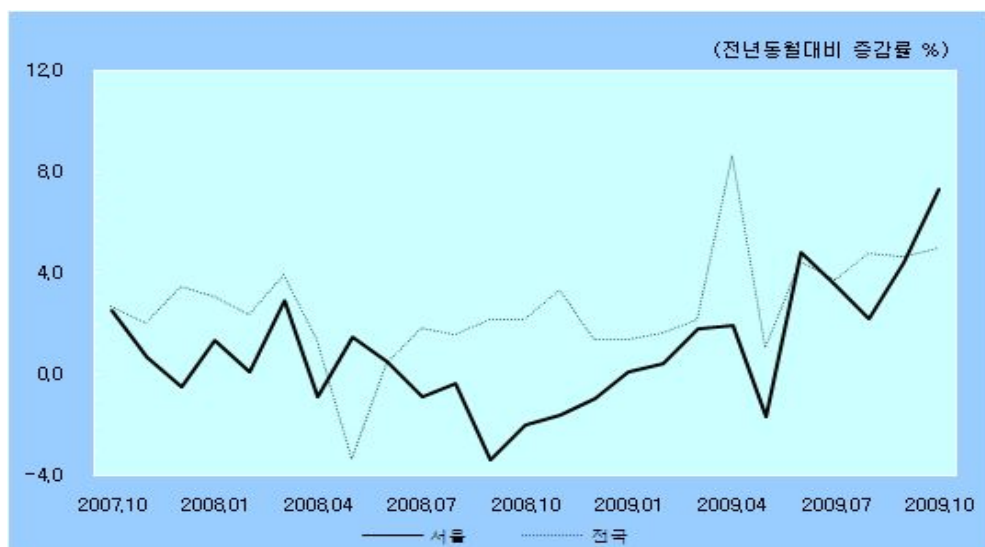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등은 감소, 사무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51천명(3.7%), 사무종사자 9천명(1.1%),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0.1%)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0.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27천명(-9.0%)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3.1%, -0.8%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00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8천명(-3.1%), 임금근로자는 30천명(-0.8%)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8천명(-3.6%)이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명(0.3%)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01천명(5.2%)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41천명(-3.4%), 일용근로자 89천명(-16.9%)은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6.7% 감소, 54시간 이상 취업자 9.1%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2.2%)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8%)이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4.0%)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4천명(1.2%)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1천명(-6.7%)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124천명(9.1%)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4.1%)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별	제조업	-13.0 (-4.3)	-15.5 (4.5)	-17.2 (-4.8)	-16.4 (-1.2)	-14.3 (-3.6)	-21.7 (-1.1)	-17.5 (0.9)
	SOC 및 기타서비스업	0.4 (0.4)	-0.3 (-0.1)	0.8 (1.4)	-0.3 (-0.5)	-1.4 (-1.3)	0.4 (0.5)	0.9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0 (1.5)	4.7 (0.4)	6.6 (2.9)	6.4 (-0.3)	4.9 (-1.8)	4.0 (-0.5)	3.6 (1.1)
	도소매·음식숙박	2.0 (-0.4)	-2.0 (-0.8)	-1.0 (1.1)	-3.6 (0.0)	-4.3 (0.0)	0.6 (1.5)	1.1 (0.1)
	전기·운수·통신·금융	-1.4 (1.3)	-0.2 (0.6)	-1.5 (-0.3)	0.1 (-0.7)	-1.2 (-1.6)	3.7 (1.2)	3.5 (1.1)
	건설업	-4.0 (-3.5)	-15.8 (-1.2)	-13.6 (-1.4)	-18.1 (-3.1)	-18.9 (-2.3)	-20.1 (0.4)	-16.2 (1.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2 (-2.2)	0.3 (-0.9)	3.0 (2.1)	2.2 (0.5)	2.3 (-1.0)	1.6 (0.1)	3.7 (-0.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조종사	-6.4 (0.2)	-9.7 (2.8)	-8.6 (0.1)	-9.6 (-2.2)	-11.5 (-2.3)	-11.9 (-0.1)	-9.0 (3.4)
	서비스·판매종사자	0.1 (1.0)	-1.7 (0.0)	-0.9 (0.8)	-2.6 (-0.4)	-4.9 (-1.7)	-0.8 (0.6)	0.1 (1.8)
	사무종사자	-0.9 (0.7)	5.2 (0.0)	2.4 (-0.9)	3.5 (-0.2)	6.3 (-1.1)	4.9 (1.0)	1.1 (-2.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6 (-0.3)	-2.7 (-0.1)	-1.0 (1.2)	-2.2 (-0.7)	-1.5 (-1.4)	-2.0 (0.5)	-0.8 (0.9)
	비임금근로자	-3.8 (0.2)	-1.1 (2.0)	-2.8 (-0.6)	-2.2 (-0.1)	-6.8 (-1.9)	-3.2 (-0.3)	-3.1 (0.3)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10월 서울의 실업률 3.8%로, 전국대비 0.6%p 높음

■ 전국의 실업률 3.4% 상승하였으며, 20대와 40대 이상에서 상승

- 전국의 10월 실업자는 7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8.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명(8.4%) 증가하였고, 여자는 2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8.9%) 증가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여자는 2.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전월대비 0.2%p 하락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전국(3.2%)대비 0.6%p 높음

- 10월 실업자는 1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3.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1.1%), 여자는 69천명으로 5천명(8.0%)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전국대비(3.2%) 0.6%p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자는 3.2%로 0.2%p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8.0%로 전국의 고용률(59.3%)보다 1.3%p 낮은 수준

- 전국의 10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48.5%로 전년동월대비 0.6%p 각각 하락하였으며, 20~40대에서 하락하였음
-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7%로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여자는 48.0%로 1.1포인트 각각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3%)에 비해 1.3%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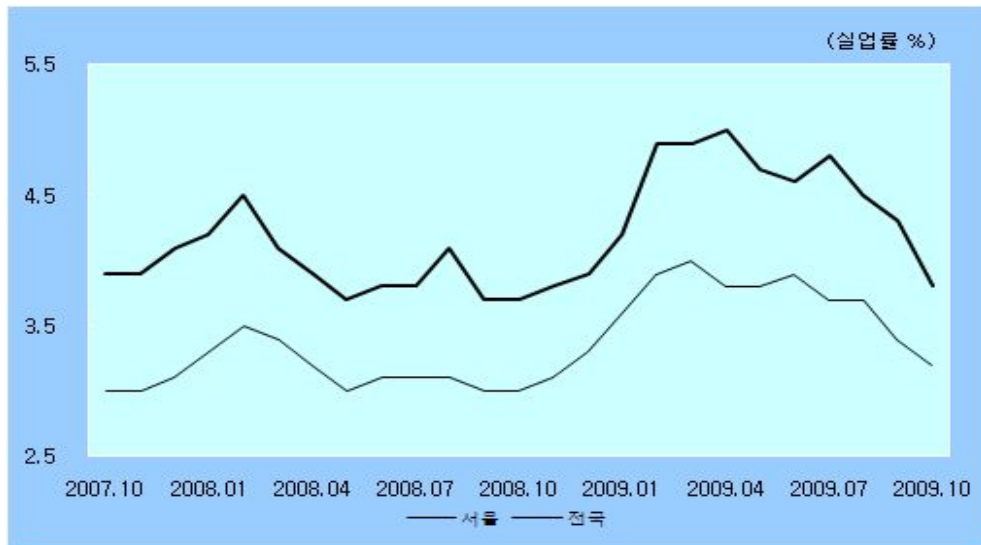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업률	전국		3.0	3.8	3.9	3.7	3.7	3.4	3.2
	서울		3.7	4.7	4.6	4.8	4.5	4.3	3.8
	성별	남자	4.2	5.2	5.3	5.6	5.2	5.1	4.3
		여자	3.0	4.0	3.6	3.7	3.4	3.2	3.2
고용률	전국		60.0	59.3	59.8	59.4	58.8	59.2	59.3
	서울		59.3	58.4	58.7	58.4	57.5	57.6	58.0
	성별	남자	70.1	69.4	69.6	69.0	68.0	68.0	68.7
		여자	49.1	48.0	48.5	48.3	47.5	47.8	48.0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2009년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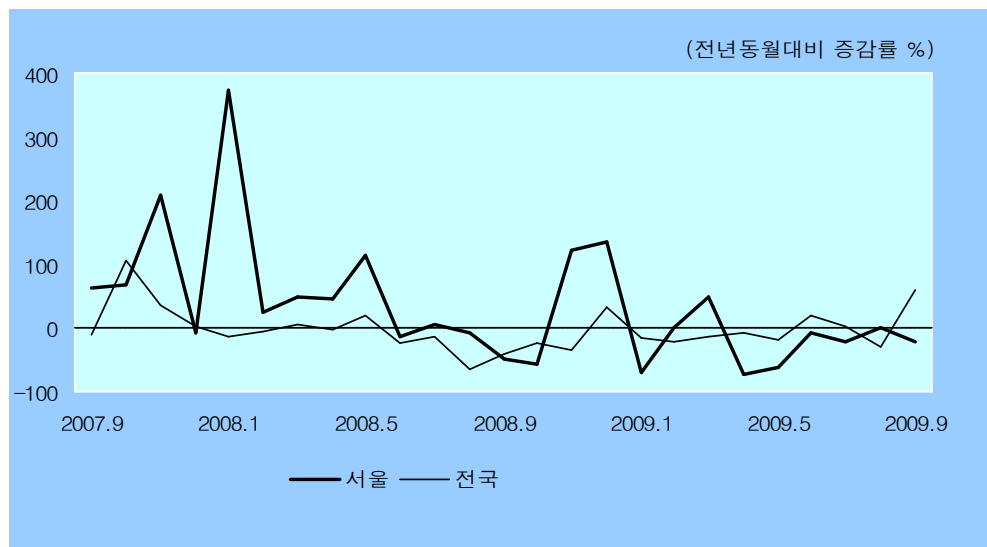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39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6%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8조 7,41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4%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9.6%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조성 공사 및 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266.5%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주택재개발 공사 및 사무실 건축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59.4%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5,519	6,988	11,247	5,527	4,352	8,741	58.4	100.9
서울		1,085	1,024	1,795	740	864	840	-22.6	-2.8
발주 자별	공공	76	147	197	40	102	278	266.5	172.5
	민간	984	872	1,547	967	758	400	-59.4	-47.2
공종 별	건축	1,013	978	1,665	726	800	487	-51.9	-39.1
	토목	62	46	129	14	62	352	470.7	467.7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0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 10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 10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어 가고 DTI 금융규제 확대 시행 등 규제 강화로 전월(0.7%)에 비해 상승세는 크게 둔화된 모습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이 각각 0.4%, 0.3%, 0.5% 상승하며 주택유형 전반에 걸쳐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증가와 소자본 재개발 투자 수요 증가로 연립주택이 상대적인 강세 지속

## ■ 10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서울 강남지역(0.4%)과 강북지역(0.5%)도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상승폭이 일제히 크게 축소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0.3%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각각 0.6%, 0.7%로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 유형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나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9월	10월		
전국	101.1	100.9	101.1	-0.1	0.4
서울	101.8	102.1	102.5	0.8	0.5
아파트	102.5	102.3	102.6	0.1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1.2	101.3	0.6	0.5
	강남	102.4	102.9	0.9	0.4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강북지역(0.5%)에서는 마포구(0.8%)가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착공 등 호재와 역세권 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0.8%)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호재와 자유휘 사립고 전환에 따른 미아동 일대 학군 수요 증가로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성북구(0.7%)는 대학가 원룸 신축 수요 증가 및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단독연립주택 수요증가로 크게 상승하였고, 중랑구(0.7%)도 전월에 이어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의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감

###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강남지역(0.4%)에서는 관악구(0.7%)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투자수요 증가와 전세난에 따른 자가전환 수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주택의 매수수요가 증가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영등포구(0.6%)는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단독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감
- 양천구(0.6%)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및 재개발 이주수요 등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강서구(0.6%)도 금융 규제 강화 이후 매수문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소형 아파트 및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0월 30일 기준)은 1,842.02만원으로 전월(1,840.62만원)대비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92만원), 서초구(2,806만원), 용산구(2,574만원), 송파구(2,504만원), 양천구(2,020만원), 강동구(1,922만원), 광진구(1,859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2만원), 중랑구(1,134만원), 강북구(1,139만원), 도봉구(1,16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10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 ■ 10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거래가 감소하고,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며 0.7% 상승으로 전월(1.4%)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수도권(0.9%)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광역시(0.6%)와 기타지방(0.4%)도 상승폭이 축소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나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0.9%, 0.3%, 0.7% 상승하며 전 유형에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 10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 크게 둔화

- 강북지역(1.0%)에서는 강북구(2.3%)가 소형 아파트 물량 부족 및 경전철 건설 호재,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학교 입학에 앞둔 전세수요 증가로 매매가격과 함께 큰 폭 상승
- 마포구(1.4%)도 계절적 수요 및 재개발 이주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 비해 기존 세입자들의 움직임은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함. 노원구(1.3%)는 전반적인 물량 부족 현상에 인근 지역 재개발 이주수요가 가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중랑구(1.3%)도 물량부족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주변지역 가격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강남지역(1.1%)에서는 서초구(1.6%)가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크게 둔화되었고, 강서구(1.6%)도 지하철 9호선 개통 과 재개발 이주로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재개발 이주가 다소 마무리되어가고 추석 명절을 전후로 거래가 감소하며 전월(4.4%)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영등포구(1.3%)는 대형 쇼핑몰 개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 상승으로 상승세가 단독연립주택으로 확산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관악구(1.2%)는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임대인의 월세 선호 증가로 전세물량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감
- 서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1.1%, 0.6%, 1.3% 상승하며 전 유형에 걸쳐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1%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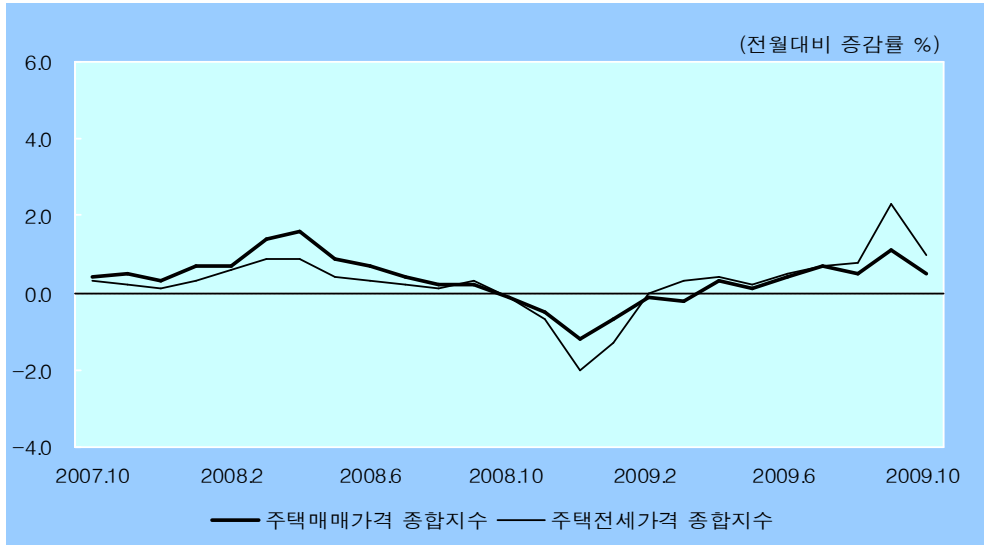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9월	10월		
전국		101.5	101.8	102.5	1.0	0.7
서울		102.8	104.0	105.1	2.3	1.0
아파트		103.8	105.7	106.8	2.9	1.1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2.1	102.5	103.5	1.4	1.0
	강남	103.5	105.6	106.7	3.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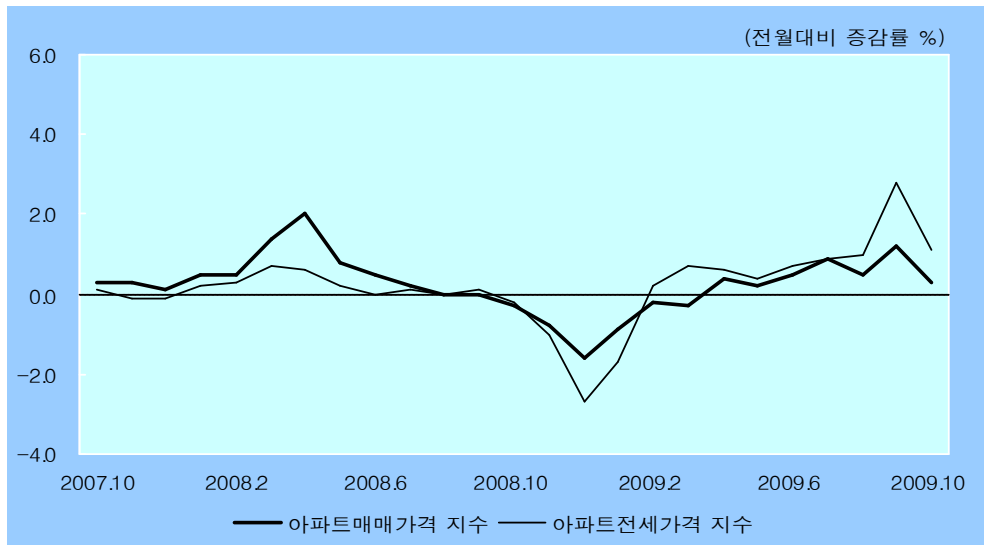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0.0%로 전월(39.7%)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5월 38.8% → 6월 38.9% → 7월 38.9% → 8월 39.1% → 9월 39.7%)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0월 전국 평균 53.5%보다 13.5%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6%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2.8%, 강남 37.7%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1%p이며 지난달(5.1%p)과 같은 수준임.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0월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수준 기록 후 상승폭 축소

### 금리

#### ■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수준 기록 후 상승폭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3/4분기 GDP 성장률 등으로 연중 최고수준(10.26일 4.62%)를 기록한 후, 저가매수자금 유입,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제기 등으로 상승폭 축소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

#### ■ CD 금리는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

- CD(91일) 금리는 2.81%(10.9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전월중 큰 폭 상승했던 은행채(3개월) 금리 급락 등의 영향으로 중순 이후 하락

### 주가

#### ■ KOSPI 지수 상승세에서 월말경 등락

- 10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미국 주가상승 등으로 9월 하순 이후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1,600p 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월말경 세계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원화강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재차 하락하여 1,600p 이하에서 등락  
(08년 10.24일 939p → 08년 12월말 1,124p → 9월말 1,673p → 10월말 1,581p)

#### ■ 10월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전월대비 축소

- 10월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그 규모는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  
외국인 순매수: 5월 4.1조원 →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 8월 4.1조원 → 9월 5.1조원 → 10월 1.6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 리	국고채(3년)	4.47	4.09	4.09	4.42	4.40	4.47	0.07
	CD(91일물)	5.98	2.41	2.41	2.48	2.64	2.79	0.15
	콜금리(1일)	4.88	1.93	1.93	1.98	1.99	1.99	0.00
	장단기 금리차 <sup>1)</sup>	-1.51	1.68	1.68	1.94	1.76	1.68	-0.08
주 가	KOSPI	1,201.70	1,395.24	1460.03	1577.91	1659.45	1630.61	-28.84
	KOSDAQ	348.31	516.39	496.39	515.61	523.16	501.83	-21.33
환율 (₩/US\$)		1326.85	1,262.28	1,261.96	1,239.69	1,215.00	1,174.80	-40.20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 은행 가계대출 증가 전환

-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중 크게 확대되었던 은행들의 대출자산 유동화가 줄어들면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유동화분을 포함해서 보면 전월에 이어 증가규모 축소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추석 관련 카드사용대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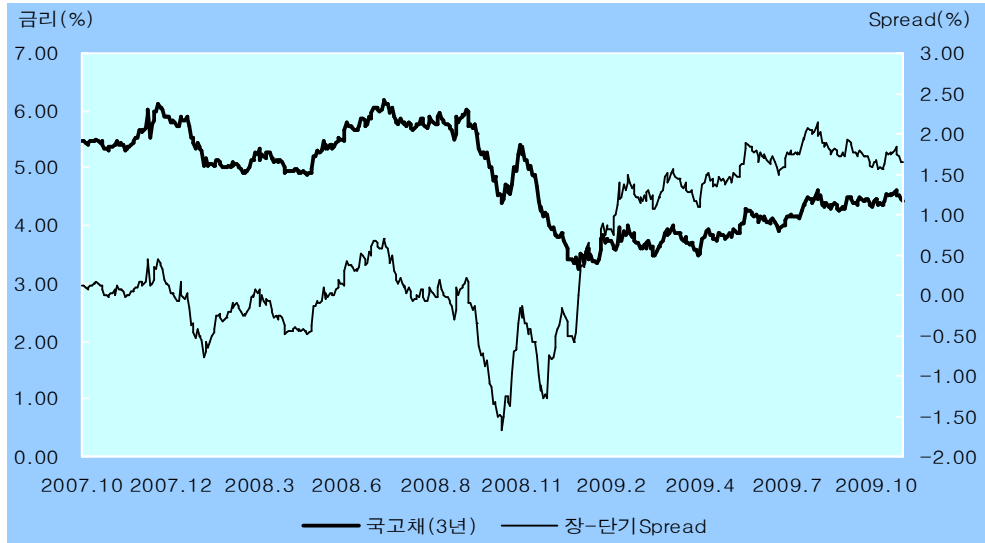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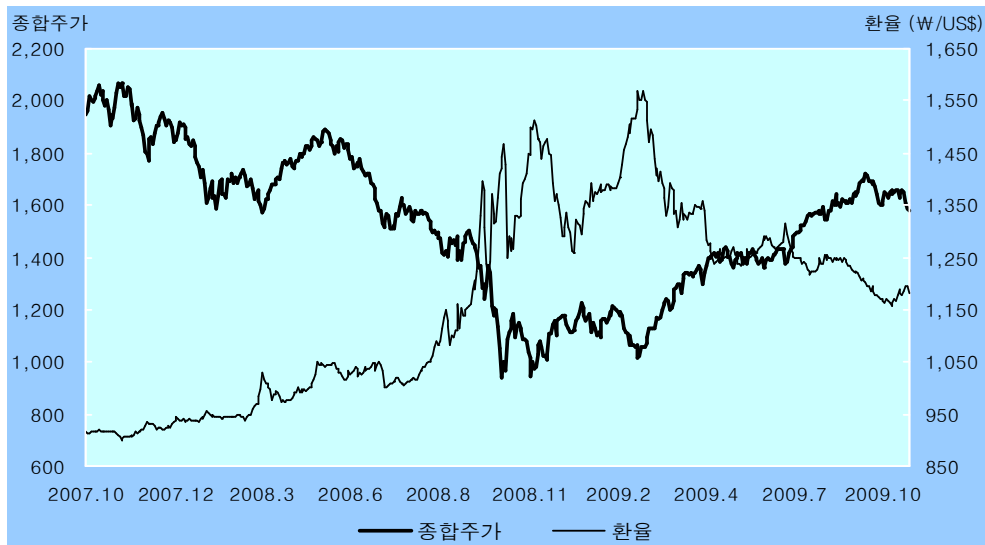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연중	6월	7월	8월	9월	10월	2009년	
								9월	10월
가계대출 <sup>1)</sup>		25.0	4.0	2.6	3.0	-1.0	1.4	404.2	405.6
주택담보대출 <sup>2)</sup>		18.1	3.5	3.4	2.8	-0.4	1.4	260.1	261.6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5	-0.7	0.2	-0.5	0.0	142.8	142.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9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9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56조 6,775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7,675억원 (0.54%) 증가
- 9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1조 9,75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1,204억원 (0.42%)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900,567.80	947,207.9	950,708.7	956,229.6	958,578.1	2,348.5	0.25
	비은행기관	280,423.20	286,925.1	288,885.8	293,680.4	298,099.4	4,419.0	1.50
	합계	1,180,991.00	1,234,133.0	1,239,594.5	1,249,910.0	1,256,677.5	6,767.5	0.54
서울	예금은행	396,236.50	416,976.6	419,566.7	420,959.5	421,465.7	506.2	0.12
	비은행기관	85,971.00	85,866.8	86,343.7	88,895.4	90,509.6	1,614.2	1.82
	합계	482,207.50	502,843.4	505,910.4	509,854.9	511,975.3	2,120.4	0.42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9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전월보다 1.4%p 하락하여 전월대비 하락 폭 증가(4월 90.2% → 5월 89.9% → 6월 89.2% → 7월 89.8% → 8월 89.1%)
- 서울의 9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1.2%를 나타내어 전월보다 하락한 수준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9월	6월	7월	8월	9월	
전 국	88.5	89.2	89.8	89.1	87.7	-1.4
서 울	61.2	62.2	62.2	61.7	61.2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9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전환

- 9월 신설법인은 5,193개로 전월비로 13.7%(626개) 증가하여 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41.5%(1,522개) 증가하여 6월부터 4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9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00개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업인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증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크게 증가

- 9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76개로 전월대비 14.5%(238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45.3%(585개) 크게 증가

##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7.6%(402개) 증가, 제조업 120.5%(147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33.7%(3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671	5,393	5,501	4,567	5,193	626	13.7	1,522	41.5
서울	1,291	2,019	1,974	1,638	1,876	238	14.5	585	45.3
서비스업	1,069	1,546	1,490	1,254	1,471	217	17.3	402	37.6
제조업	122	318	321	264	269	5	1.9	147	120.5
건설 및 설비업	98	151	158	112	131	19	17.0	33	33.7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9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38개로 전월(110개)보다 28개 증가하였으나 09.1~8월 평균치(181개)를 크게 하회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9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7개로 전월대비 62.9%(22개)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28.8%(23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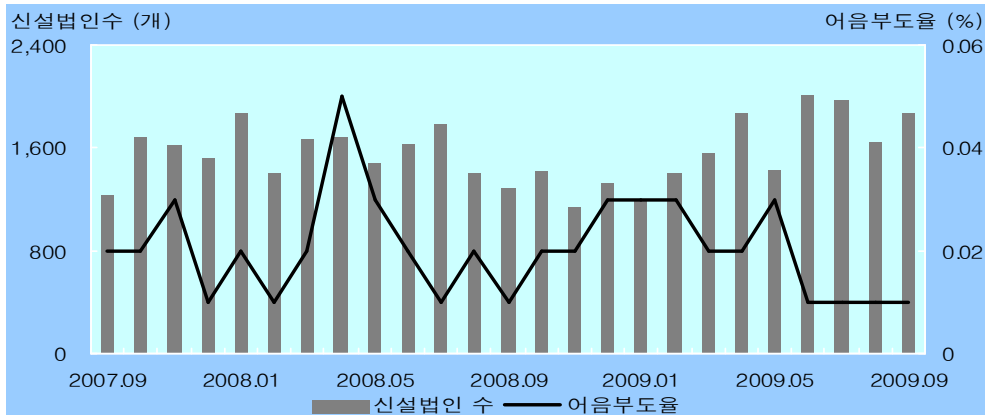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2	0.02	0	0.0	0.00	0.0	
	부도업체 수	203	125	129	110	138	28	25.5	-65	-32.0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	0.0	0.00	0.0	
	부도업체 수	80	51	45	35	57	22	62.9	-23	-28.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액 신용보증 지원체제 유지

## ■ 신용보증 건당평균금액 감소세

- 10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5,197건, 71,127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62.1%, 금액 기준 66.5%의 감소세를 기록함
-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총량규모 건수 기준 30.9%, 금액 기준 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당평균금액은 23.5% 대폭 감소를 나타냄
- 전반적인 공급 지표는 하락하였으나, 이는 대규모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시행종료에 따른 결과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971	10,894	10,944	13,036	13,699	5,197	-8,502	-62.1	1,226	30.9
금액	71,059	210,545	190,971	203,478	212,133	71,127	-141,006	-66.5	68	0.1
건당평균금액	17.9	19.3	17.4	15.6	15.5	13.7	-1.8	-11.6	4.2	-23.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서비스업 신용보증공급의 증가세 지속

- 10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특징은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건수기준 5.4%p(43.6% → 49.0%), 금액기준 3.0%p(34.0% → 37.0%) 증가로 6달 연속 점유비 증가세를 유지함
- 반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타 업종 신용보증 합계는 6 달 연속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비중 감소세를 나타내며 각각 51.0% 와 63.0%의 비율을 차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91	1,382	701	2,549	374	5,197
비율	3.7	26.6	13.5	49.0	7.2	100
금액	3,622	23,264	11,462	26,345	6,434	71,127
비율	5.1	32.7	16.1	37.0	9.1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중기업 비중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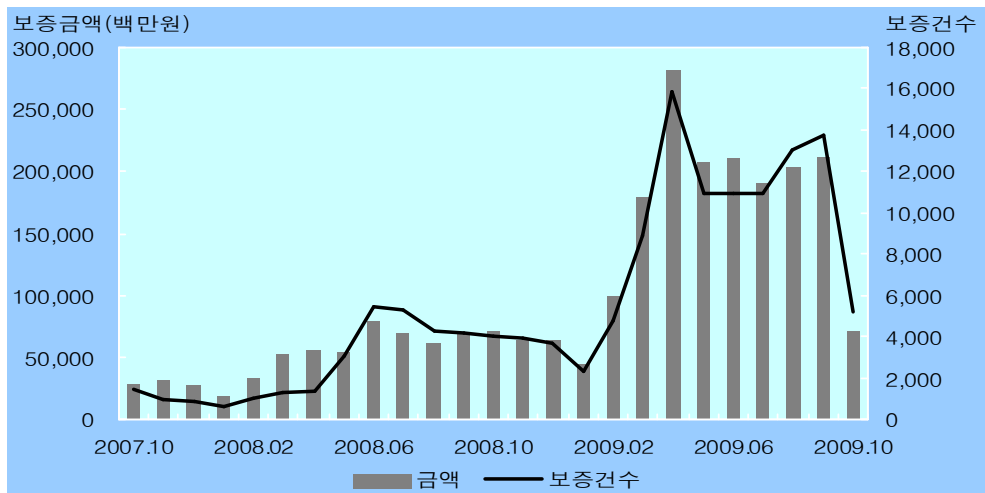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0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차지 비율은 전월대비 건수기준 0.1%p,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 0.7%p 감소
- 한편, 중기업 비중은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전월대비 0.1%p(0.3% → 0.4%), 0.5%p(1.2% → 1.7%) 증가율을 나타내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8	2009.09	2009.10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2,787	13,444	5,102	-8,342
	비율	98.1	98.1	98.2	0.1
	금액	192,341	200,550	66,820	-133,730
	비율	94.5	94.6	93.9	-0.7
소기업	건수	216	213	73	-140
	비율	1.7	1.6	1.4	-0.2
	금액	9,541	9,015	3,134	-5,881
	비율	4.7	4.2	4.4	0.2
중기업	건수	33	42	22	-20
	비율	0.2	0.3	0.4	0.1
	금액	1,596	2,568	1,173	-1,395
	비율	0.8	1.2	1.7	0.5
합계	건수	13,036	13,699	5,197	-8,502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03,478	212,133	71,127	-141,006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 전국 수출 감소율 전월에 이어 한 자릿수 기록

- 전국의 수출은 340억 달러(전년동월대비 8.5% 감소), 수입은 303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6.0% 감소)로 무역수지는 36.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함
- 10월 전국의 수출 감소율이 지난달(7.8%)에 이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8.5%)를 기록하였고 수입도 금년 들어 최저 감소율과 최대금액을 기록
- 전월대비 수입은 증가(1.8%)한 반면, 수출은 소폭(1.6%) 감소하면서 흑자폭은 소폭 축소, 총 교역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임

#### ■ 전국 수출 회복세, 수입은 원자재 중심의 증가세

- 수출에서는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가전제품, 금 등 주력품목들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선박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지난달과 비슷함
- 수입에서는 전년대비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모두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원유 등 연료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는 전월보다 5.0% 증가

####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수출은 31.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하였고, 수입은 66.8억달러로 10.5% 감소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11.0%, 5.5% 감소

#### ■ 10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51,266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47,539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7,111	32,634	32,023	28,966	34,507	33,957	-3,154	-8.5	-550	-1.6
	수입	36,099	25,364	27,617	27,262	29,795	30,326	-5,773	-16.0	531	1.8
서울	수출	2,892	2,510	3,098	2,793	3,565	3,172	280	9.7	-393	-11.0
	수입	7,463	6,002	6,581	6,470	7,073	6,682	-781	-10.5	-391	-5.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0월		2009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216	288.6	351,266	493.2
2	반도체	165,476	-20.8	193,821	17.1
3	자동차부품	115,794	16.1	189,662	63.8
4	편직물	212,292	30.6	182,377	-14.1
5	컴퓨터	103,919	20.4	158,370	52.4
6	합성수지	98,315	-4.1	154,495	57.1
7	무선통신기기	82,724	-0.8	142,882	72.7
8	고무제품	103,939	-3	117,885	13.4
9	의류	93,941	1.3	83,394	-11.2
10	합성고무	44,488	136.5	81,427	83
합계		2,892,475	18.9	3,172,084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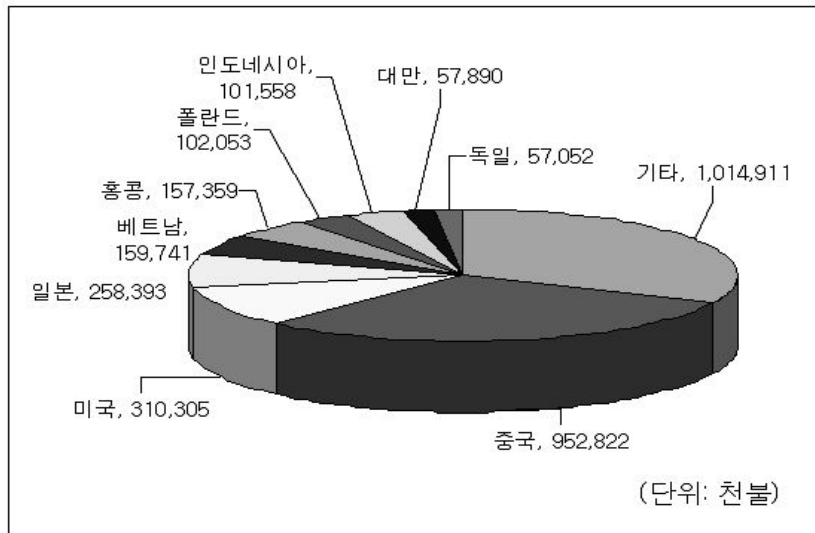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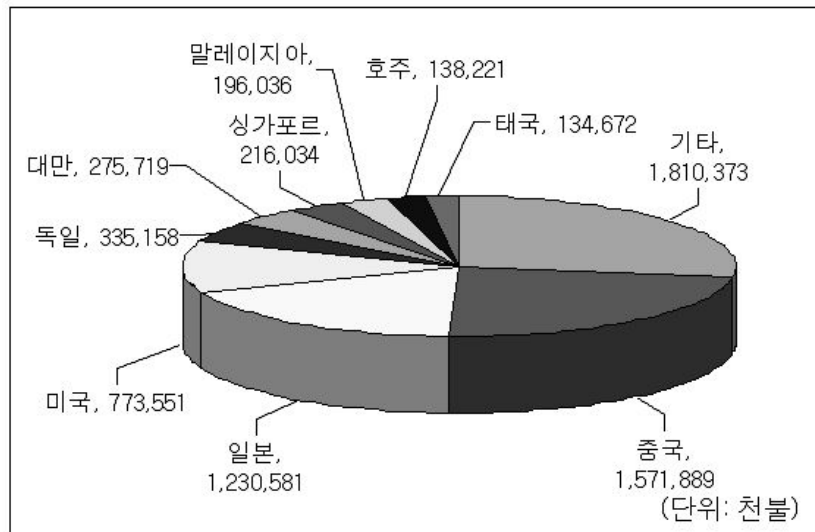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0월		2009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42,820	85.8	647,539	-12.8
2	컴퓨터	480,859	-18.6	436,352	-9.3
3	석유제품	173,412	27	294,595	69.9
4	의류	336,116	50.7	292,612	-12.9
5	플라스틱제품	80,336	8.3	194,363	141.9
6	자동차	143,272	-46.2	163,500	14.1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64,946	50.7	159,882	-39.7
8	농약 및 의약품	128,124	16.3	159,142	24.2
9	LPG	187,342	1,492	158,366	-15.5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8,338	233.6	128,667	8.7
합계		7,462,894	16.4	6,682,234	-10.5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